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0.835% (판매 0.4%)
 - 클래스 A-E : 총 연 0.635% (판매 0.2%)
 - 클래스 C : 총 연 1.135% (판매 0.7%)
 - 클래스 C-E : 총 연 0.785% (판매 0.35%)
 - 클래스 C-P2(연금저축) : 총 연 0.785% (판매 0.35%)
 - 클래스 C-P2(연금저축)E : 총 연 0.615% (판매 0.18%)
 - 클래스 S : 총 연 0.635% (판매 0.2%)
 - 클래스 S-P2 : 총 연 0.595% (판매 0.16%)
- (공통사항)
운용 0.4%, 신탁 0.02%, 사무관리 0.015%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 납입금액의 0.4% 이내
- 클래스 A-E : 납입금액의 0.2% 이내
- 클래스 C/C-E/C-P2(연금저축) :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3월 KOSPI는 전월 대비 2.04% 하락한 2,481.12pt, KOSDAQ은 9.56% 하락한 672.85pt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부각됐고, 이와 달리 유럽과 아시아 증시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의 관세 부과 연기 소식과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힘입어 반등세를 나타냈으나,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공매도 재개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전월 대비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 반도체, 통신서비스 업종이 양호한 흐름을 보인 반면, 전자부품과 의약 업종은 부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월 대비 1.87% 상승한 1,466.5원을 기록하며 원화 약세를 나타냈고, WTI 기준 국제유가는 전월 대비 2.47% 상승한 71.4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동기간 국내 시장에서 기관투자자는 1.28조원 순매수했으며, 외국인투자자와 개인투자자는 각각 2.15조원, 2.02조원 순매도했습니다.

전월 미국 채권시장은 관세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우려가 혼재되며 등락했습니다. 월초 2월 ISM 제조업지수가 예상치 하회와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미10y 금리가 4.15%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나, 파월 의장의 경기침체 가능성 일축, 월 중순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 발표 이후 인플레 경계심 재부각으로 4.3%까지 상승했습니다. 이후 3월 FOMC에서 QT 규모 축소 결정, 파월 의장의 도비쉬운 기자회견 등으로 미 국채금리는 다시 4.2%대로 하락했습니다. 국내 채권시장은 미 관세정책 영향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추경 논의 재개와 함께 2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가계대출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금통위 우려 확인 등 2분기 금리인하 기대 조정으로 국고채 금리가 전월대비 소폭 반등했습니다. 미 관세정책 및 현재 선고 일정 지연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월중 달러 환율 상승 압력 나타난 것 또한 채권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국고채 3년 금리는 전월대비 보합인 2.560%, 국고채 10년 금리는 전월대비 6.7bp 상승한 2.767%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국내 주식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이슈로 인해 한국의 불확실한 교역 환경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으며, 4월 공매도 재개로 인해 주가 상승폭이 커진 종목, 고밀티플 종목에 대한 부담감이 점증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5년 1~2월 누적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내 증시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단기간은 매도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2분기부터 가격 인상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2분기부터 실적 상향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종전 기조로 전환하고 향후 유럽 지역의 분쟁에 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유럽의 군비 지출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방산업체 수혜 가능성은 과거 대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업종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며 중국의 외교 정책 변화 또한 감지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의 외교 정책은 마음에 들지 않는 국가에게 강압적으로 일관한 전략 외교였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대한 반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유화책을 펴는 정책 전환 시도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6년 사드 배치 이후 존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한한령 정책의 해제 가능성은 과거 대비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반사 수혜가 예상되는 미디어/엔터 업종에 대한 관심을 높게 유지할 계획입니다.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 가격 조정폭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 업종에 대해서는 높은 비중을 유지할 계획이며 중국의 감산 가능성은 커진 철강 및 태양광 업종에 대해서는 시장 대비 오버웨잇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시장의 우려감으로 인해 펀더멘탈 대비 가격 조정이 커진 업종 및 종목에 대한 비중을 점진적으로 상향하여 균형감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연준은 3월 FOMC에서 올해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고 물가전망치는 상향 조정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해 심리부진과 실물경제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인플레 수준은 높게 유지되며 당분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근 소매판매 둔화와 제조업 지수 약세가 확인되고 있어, 고용지표 둔화가 확인되면 금리 하락 요인이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는 추경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정확한 시점은 불확실한 상황인 가운데 국내 지표 둔화세가 확인되고 있고 4월초 본격적으로 시행될 미 관세정책 영향으로 개선 가능성은 크지 않아 한국은행의 추가 인하 기대가 지속될 점은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달러·원 환율 상승 흐름은 금리 하락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결정 이후 추경 시기나 규모, 금융 시장 여건에 따라 금통위 전후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고 3년 2.45~2.70% 전망, 국고10년 2.65~2.90% 전망하며, 뉴레이션 확대 대응 유지할 계획입니다.